

#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개관

### 5일까지 새활용 정책토론회 · 시민아카데미 · 새활용작품 기획전시 등 다양한 개관 주간행사 진행

섬매대집결지에서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신 중인 서노송예술촌에 버려지는 자원을 가진 상품으로 되살리는 새활용센터가 문을 활짝 열었다.

전주시는 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강소영 새활용센터 운영위원장, 민간위탁 수탁자인 송원 배우더컴퍼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개관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간소하게 열린 이날 개관식은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사업 소개와 공간 라운딩, 기획전시품 관람,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개관식에 이어 오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새활용 정책토론회 ▲새활용 시민아카데미 '공유xUP 이야기' ▲새활용작품 기획전시 ▲

지구를 위한 새활용 프로그램 '플라스틱 원정대, 우리의 재발견' ▲업사이클 수공예 제품 장터 '다시봄 반짝가게' 등 새활용 인식개선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들로 개관 주간행사를 준비했다.

3일 새활용 이슈에 대해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새활용 시민아카데미가 열렸으며, 4일에는 '전주 새활용 소재 개발산업 가능성'을 주제로 새활용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또 업사이클 활동가 5인의 새활용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시전이 오는 30일까지 열리며, 4일과 5일에는 페유리를 이용한 유리화화 프로그램과 제로웨이스트 상점이 운영된다. 전주시 새활용센터 다시봄 홈페이지(jacob.or.kr) 사전 신청을 통해 페플라 스틱을 활용한 열쇠고리를 만드는 체험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은 섬매대 집결지에서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신 중인 서노송예술촌에 국비 24억 원을 포함한 총 48억 원이 투입돼 지상4층 연면적 1,180㎡(356평) 규모로 구축됐다. 1층에는 카페와 판매장, 업사이클 소재 전시실, 공구를 대여하는 수리도서관이, 2층에는 업사이클링 창업보육공간인 7개의 랩실과 공동작업실이 들어섰고, 3층과 4층은 전시실과 체험교육공간으로 조성됐다.

2층에 있는 7개의 랩실에는 새활용 디자이너와 새활용기업, 제로웨이스트 기획자, 친환경 수공예가 등 7개 팀이 입주해 새활용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향후 센터는 새활용 시민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전주쓰레기자원새활용 디자인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시민 대상 새활용 체험 프로그램도 수시

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폐자재와 폐제품을 수거해 가공·생산·판매까지 새활용 산업 전 과정을 윈스톱으로 진행해 자원순환 대표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새활용은 단순히 물건을 한 번 더 쓰는 재활용이 아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가치를 담아 새로운 쓰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다시봄 센터가 대한민국 새활용 문화의 거점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승수 시장은 지난 2일 (사)거버넌스센터의 '2021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섬매대집결지를 문화예술마을로 변신시킨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로 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윤상 기자

## 고품질 딸기 생산 경쟁력 ↑

### 전주농기센터, 고랑동에 첨단육묘시설 구축

전주시가 딸기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품질 딸기묘 생산기반을 구축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총사업비 4억 원을 들여 고랑동에 우량 딸기묘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첨단육묘시설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전주에서는 원당동과 장동, 고랑동 소재 40호 농가가 총 30ha 면적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육묘시설 기반이 미비해 논산, 산청 등 타 지역에서 묘를 구입해야 하는데 최근 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첨단육묘시설은 농업의 규모화와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동하우스로 조성됐으며, 일반 땅 재배보다 노동력을 50% 줄일 수 있는 고밀양액시설을 갖춰 딸기 우량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육묘생산량은 어미묘 15만 주, 자묘 23만 주 정도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지역 내 딸기 농가를 대상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우량딸기묘를 타 지역 가격의 70~80% 수준인 한 주당 500원에 15만 주를 공급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3월에는 어미묘를, 9월에는 자묘를 공급할 예정으로, 어미묘의 경우 지역 농가가 필요한 양을 100%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딸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딸기 재배교육과 현장컨설팅을 지원기로 했다. 시는 고품질 딸기 생산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전주딸기를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권주 소장은 "첨단육묘시설 구축을 통해 타 지역에서 묘를 구입하는 비용이 절감되고 우량묘 구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품질 좋은 딸기 생산이 가능해진 만큼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전주 딸기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제12회 전주시민원탁회의 개최

전주시가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3일 제12회 전주시민원탁회의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전주시민원탁회의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시정 전반에 참여해 자유롭게 토론했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소통의 장(場)이다.

이번 원탁회의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원인과 대책을 진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가는 길 찾기 - 안녕? 평등씨!'라는 의제로 시민 참가자와 시민기획단, 퍼실리테이터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 1일 2회 분산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좁힐 수 있는 대안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연극(공트), 만화 등 다양한 기법이 동원됐으며 성차별과 세대 갈등을 담은 짙막한 공연으로 자유로운 열린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2시간의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곳곳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차별과 혐오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도출됐으며, 참가자들의 공감을 가장 많이 획득한 아이디어가 우수정책으로 뽑혔다.

BEST 시민 참여자와 우수정책팀에게는 전주시장상이 수여되며, 향후 일일 명예시장 위촉과 시장실 초청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코로나19 덕진예방접종센터 합동점검

### 전주시 ·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 백신보관시설 · 환기시설 정상 작동여부 등 확인

전주시가 오는 14일부터 가동될 코로나19 덕진예방접종센터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시와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은 3일 우아동 덕진보건소에서 전북도, 덕진소방서, 덕진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덕진예방접종센터 합동점검을 했다.

합동점검을 통해 ▲백신보관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정상 작동여

부와 접종대상자 동선 상황 및 입·출구 분리여부 등 예방접종센터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 백신 보관에 필요한 초저온냉동고와 관련된 임시전력 여부와 시설 주변의 교통상황, 흡플러스 주차장 임시사용을 비롯 인근 주차 수용 상황 등도 점검했다.

향후 시는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오는 7일 접종 사전준비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단계에 이르기까지 미리 시연해보는 자체 모의훈련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덕진보건소 건물을 활용하는 덕진예방접종센터는 오는 14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곳에서는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화이자(영하 75C ± 15)와 모더나(영하 20도) 백신이 접종되며, 1일 최대 1,600여 명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시는 화산체육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완산예방접종센터에 이어 덕진예방접종센터까지 운영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어 집단면역 도달에 한 걸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안전하고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대상자 및 백신수급 관리에서부터 이상반응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하나하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은 3일 우아동 덕진보건소에서 전북도, 덕진소방서, 덕진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덕진예방접종센터 합동점검을 했다.

## '전주형 마을부엌 시범사업' 본격 추진

### 전주농기센터, 먹거리공동체 통해 시민 150여명 식생활 개선 나서

전주시민들의 식습관 개선을 도울 먹거리공동체 육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150여 명의 식생활 개선을 돕는 '전주형 마을부엌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범 운영된다.

그간 식생활 개선사업들이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진행됐던 것과는 달리 전주형 마을부엌 사업은 식습관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20~50명가량의 시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공동체를 통해 조리기술 등 식생활 지혜를 공유하고, 환경 캠페인과 나눔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마을부엌 현장 지원을 위한 활동가와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일부터 전주형 마을부엌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주형 마을부엌은 ▲이겨내는 마을부엌 ▲채식인의 마을부엌 ▲독립만세 마을부엌 ▲오랫따차 마을부엌 등 4개 모델로 운영된다.

이겨내는 마을부엌의 경우 당뇨·고혈압·비만 등 성인병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성인병 극복과 식습관 개선을 위한 활동이 펼쳐진다.

'채식인의 마을부엌'은 자연음식문화원과 협력해 건강과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채식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기후변화 활동가들과 함께 생활 속 제로웨이스트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벌인다. 굿네이버스와 협업하는 '독립만세 마을부엌'의 경우 보호시설폐소 청소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리기술을 공유하게 된다. 중년 남성들이 참여하는 '오랫따차 마을부엌'에서는 노후를 대비한 식습관 교육과 함께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눔 활동을 병행 추진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전주먹거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마을부엌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윤상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